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 윤 정*

김 현 진**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이 지각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 1196명(남성 455명, 여성 741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학생핵심역량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는 학생핵심역량의 6개 하위역량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6개의 학생핵심역량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 학생핵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본 논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주지자: 김윤정/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과 조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Tel: 02-944-5765/E-mail: bimay@iscu.ac.kr

** 교신저자: 김현진/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Tel: 02-944-5153/E-mail: hjinkim71@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금 우리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유용한 지식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의 홍수 속에서 복잡성을 관리하고 적용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기능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 대학교육은 주로 전공별 핵심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내용과 방식이 현대의 직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응용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소경희, 2009). 특히 학업 성취도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병식, 최정운, 2008).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식 전달 기능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인재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학들은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강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들마다 교육목표와 비전 및 인재상에 맞는 핵심역량 요소를 도출하고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역량 수준을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허영주, 2022).

최근 일반대학의 이러한 흐름은 성인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는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직업세계 속에서 대학졸업 이후에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직무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격대학은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대학에서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의 분위기 속에서 원격대학 또한 성인학습자들의 특성과 원격대학 고유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핵심역량의 도출과 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황지원, 노일경, 정혜령, 2016).

원격대학의 성인학습자는 이미 직장 등의 사회진출 경험을 가진 자들로서 대학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적용을 통한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Knowles, Holton, & Swanson, 1998). 이러한 점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직무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증진에 누구보다 관심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대학들 또한 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증진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 중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김기홍, 이경희, 2020; 남창우, 박영희, 송지희, 2016; 조미경, 김미영, 2018; 조무정, 최선일, 2019;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황지원, 손유미, 백영은, 2017; 허영주, 2022).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영향변인들은 크게 학습자 개인변인과 교육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자 개인변인, 특히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었다(남창우 외, 2016; 백평구, 2013; 조무정,

최선일, 2019; 진미석 외, 2011; 황지원 외, 2017). 또한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연령별, 전공계열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안나, 이병식, 2003; 배현주, 백영은, 2017; 전예원, 2014; Eagly, 2009).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라 맞춤형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변화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이보다는 변화와 개선이 가능한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역량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요 개인 심리변인과 교육환경 변인의 영향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육변인으로 수업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는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업지속과 같은 학업성과와 교육의 질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개인 심리적변인과 교육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김동심, 김실희, 2017; 김숙인, 신태섭, 2020; 송수연, 김한경, 2020). 더욱이, 이들 변인은 일반대학 학생들의 핵심역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홍, 이경희, 2020; 허영주, 202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의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이러한 변인들이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이버대학 교육의 질과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평생학습의 요구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성인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이 미래 사회의 교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

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수진이 수업설계와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

역량(competency)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특정 활동이나 직무 등 다양한 맥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 등 행동특성의 총체를 의미한다(소경희, 2009; 이근호 외, 2012; McClelland, 1973; OECD, 2005). 특히 역량 중에서도 조직이나 개인이 직업세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중요하고 근본적인 능력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e 또는 key competence)이라 할 수 있다(조무정, 최선일, 2019). 일반적으로 역량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개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포함한다면, 핵심역량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핵심역량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한 현재 삶에서의 성공적인 수행과 유연한 적응을 돕는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이근호 외, 2012). 또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닌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며, 평생학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핵심능력으로 간주된다(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역량 연구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심리학 분야에서 '역량'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가 점차 기업과 교육 맥락으로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심리학자 White(1959)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

으며, 이는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학습된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후 McClelland(1973)가 역량을 특정한 맥락에서 뛰어난 직무성과를 예측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역량 연구는 직업적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에서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의미로서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면서(김민정, 2019), 역량은 보다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역량이 교육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의 DeSeCo 국제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OECD, 2005). DeSeCo 프로젝트는 개인이 삶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의 효과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역량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 정책 입안자들, 경제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개인이 복잡한 도전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OECD, 2005). DeSeCo에서는 주요 핵심역량으로 ‘도구(지식, 기술 등)의 상호작용적 활용’, ‘이질적 그룹 내의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세 가지를 규정하였다(진미석, 2013). 여기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이상의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역량은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성적 측면을 포함하는 전인적 발달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OECD는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성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적 규모의 진단 프로그램(예: AHELO, CLA)을 개발하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평가와 교육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황지원 등, 2016).

한편 국내에서도 전공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직무 수행능력 및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성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하에 개발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 Assessment: 이하 K-CESA)이다. 이 진단도구는 대학의 교육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유용한 피드백 제공을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강명희, 김은희, 유영란, 김보경, 2014). K-CESA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종합적사고력’의 총 6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고).

K-CESA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많은 대학들은 각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 인재상과 비전 등에 맞는 대학생 핵심역량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하원, 이화선, 2017; 진미석 외, 2011). 기본적으로 대학은 미래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주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 대학생의 역량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각 대학마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정기적으로 진단하며, 역량기반의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김현우, 강선영, 2018; 윤유라, 이은주, 2021). 이를 통해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1> K-CESA의 핵심역량과 구성요소

역량	구성요소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 토론포 조정 • 읽기 • 쓰기 • 말하기

역량	구성요소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성과 적극성 다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글로벌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종합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영역: 자원, 정보, 기술 수행요소: 수집, 분석, 활용
자기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직업의식

2)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핵심역량

최근 들어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과 방송대를 비롯한 원격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진단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김용덕, 최동연, 2020; 황지원 외, 2016). 현재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능력개발이 필요한 평생학습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도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원격대학은 이러한 평생학습의 필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들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직무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nowles 등(1998)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는 이미

직장 등의 사회진출 경험을 가진 자들로서 대학교육을 통해 현재 자신의 발달과제를 즉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높다. 이러한 자신의 실제적인 요구와 기대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활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단순한 지식의 주입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중심적, 과제중심적, 그리고 문제중심적 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최윤정, 2018).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들은 직무와 삶 전반에서 유능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의 증진에 누구보다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대학은 이들에게 적합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교육과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원격대학에서도 재학생들이 졸업 후 급변하는 직업현장에 유능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생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사이버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원격대학 교육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대학의 학생핵심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한수미 외, 2022).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역량, 정보활용역량, 자율책임역량, 문예소양역량, 소통협력역량, 세계시민역량의 총 6개로 구성되어있다. 창의융합역량은 도전의식과 유연한 사고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활용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율책임역량은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문예소양역량은 문화와 예술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통협력역량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 역량은 국제적 소양과 다문화 이해능력을 갖추고 국제 및 지역사회 관점에서 사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노력은 역량기반 교육을 구현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 수준과 특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방송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K-CESA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역량과 종합사고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대학생들은 의사소통역량보다는 종합적 사고력에서 높은 핵심역량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대학생에 비해서도 종합적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학습자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일반 대학생들보다 실제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추론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학습자들의 풍부한 생애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황지원 등, 2016). 이처럼 동일 핵심역량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일반대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이 핵심역량 개발에 더욱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학습자 개인변인과 교육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자 개인변인은 다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개인 심리변인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자 개인변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남창우 외, 2016; 백평구, 2013; 조무정, 최선일, 2019; 진미석 외, 2011; 황지원 외, 2017). 그리고 연구결과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학력, 직업 등의 배경 변인에 따라 핵심역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핵심역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이병식, 2003; 조무정, 최선일, 2019; 황지원 외, 2017; Eagly, 2009). 그러나 높은 역량의 종류는 연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핵심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배현주, 백영은, 2017; 전예원, 2014; 황지원 외, 2017). 이와 더불어 전공계열별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외, 2014; 김안나, 이병식, 2003). 즉 전공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핵심역량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습자의 개인변인 중 개인 심리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의 영향력이 검토된 바 있다(김기홍, 이경희, 2020; 하정운, 김정민, 강지연, 차지철, 2016). 이들 변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이는 학업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조직 및 실행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을 통해 이를 발휘하게 된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학업 수행 과정에서 자기조절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김숙인, 신태섭, 2020; 손요한, 김인규, 2020; Komaraju & Nadler, 2013).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구병두, 양애경, 최종진,

2014; 임선아, 정운정, 2013; Robbins et al., 2004).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심, 김실희, 2017). Puziffero(2008)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실행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수업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교육성과에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 다른 교육적 성과인 핵심역량의 증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학습 과제에 도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신념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습득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기관리 등과 같은 핵심역량도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 발달한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더욱 능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들 또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핵심역량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기홍, 이경희, 2020; 이해주, 2021). 그러나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므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교육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대학은 학

생들의 핵심역량의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수업을 개발 및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은 핵심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교육변인인 대학의 분위기, 교수학습방법, 강의의 질, 학습만족도, 수업만족도 등의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김안나, 이병식, 2003; 조미경, 김미영, 2018; 전예원, 2014; 허영주, 2022). 이 연구들은 이들 교육 관련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핵심역량의 변화도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전예원, 2014). 즉 수업내용과 운영 등에 만족할수록 이후의 핵심역량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변인 중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성취를 비롯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서, 학생들의 학업지속, 학업성취, 학습효과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송수연, 김한경, 2020; Marsh, Touron, & Wheeler, 1985). 즉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에 대해 만족할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사이버대학 수업이나 학습에 대해 만족할수록 해당 수업에 가치와 효능감을 느끼게 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촉진하여 학업성취로서의 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성별, 연령대, 학년, 편입 여부, 2학기 이상 재학 여부, 학과별로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설문 실시 이후 불성실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1,196명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학생수(%)
성별	남성	455(38.0)
	여성	741(62.0)
연령대	20대	308(25.8)
	30대	302(25.3)
	40대	271(22.7)
	50대	261(21.8)
	60대 이상	54(4.5)
학년	1학년	175(14.6)
	2학년	125(10.5)
	3학년	469(39.2)
	4학년	427(35.7)
전공계열	사회복지대학	184(15.5)
	심리·상담대학	231(19.2)
	사회과학대학	173(14.6)
	융합경영대학	111(9.3)
	공학대학	142(11.9)
	디자인대학	109(9.1)
	문화예술대학	72(6.0)
	음악대학	56(4.7)
	미래융합인재대학	49(4.2)
	국방융합대학	42(3.5)
AI융합대학	27(2.4)	
전체		1196(100.0)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55명(38.0%), 여성이 741명(62.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8명(25.8%), 30대가 302명(25.3%), 40대가 271명(22.7%), 50대가 261명(21.8%), 60대 이상이 54명(4.5%)으로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았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은 비슷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5명(14.6%), 2학년이 125명(10.5%), 3학년이 469명(39.2%), 4학년이

427명(35.7%)으로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낮고, 3학년과 4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전공계열별로 사회복지대학 184명(15.5%), 심리상담대학 231명(19.2%), 사회과학대학 173명(14.6%), 융합경영대학 111명(9.3%) 공과대학 142명(11.9%), 디자인대학 109명(9.1%), 문화예술대학 72명(6.0%), 음악대학 56명(4.7%), 미래융합인재대학 49명(4.2%), 국방융합대학 42명(3.5%), AI융합대학 27명(2.4%)으로 심리상담대학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AI융합대학 학생이 가장 적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로 첫째, S 사이버 대학교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한수미 외, 2022). 이는 해당 대학에서 도출한 학생핵심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창의 융합, 정보활용, 자율책임, 문예소양, 소통협력, 세계 시민의 총 6개 하위 핵심역량의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핵심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재는 것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를 기반으로 각 하위요인별 3문항을 추출하여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업만족도는 현재 수강하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세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대표문항과 내적합치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역량	하위 역량	대표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창의융합 역량	도전의식	나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잘 포착해낸다.	8	.856
	유연한 사고	나는 조별과제나 회의 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비판적 사고	나는 다수결이나 여론에 따르기보다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는 시각을 갖는다.		
	문제해결능력	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구조화할 수 있다.		
정보활용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 관련 최신 용어를 많이 안다.	10	.920
	정보탐색능력	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정보관리능력	나는 디지털 정보와 지식을 비교, 분석하여 유용한 자료를 산출한다.		
	ICT활용능력	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 관련 최신 용어를 쉽게 이해한다.		
자율책임 역량	자율성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및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선다.	8	.797
	자기 주도성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자기 효능감	나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문예소양 역량	문화예술적통찰	나는 종종 문화예술 작품에서 동기 및 아이디어를 얻는다.	8	.895
	문화예술지식	나는 문화예술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사전 준비(배경지식, 역사 등)를 한다.		
	예술적 감수성	나는 예술에 담긴 의미와 표현을 관찰하여 핵심을 파악해 낸다.		
	문화예술향유	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소통협력 역량	문해력	나는 내 의견 및 견해를 상대방에게 글로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	10	.805
	배려	나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한다.		
	대인관계능력	나는 세대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도 어려움 없이 어울린다.		
	갈등해결능력	나는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시민 역량	외국어 능력	나는 외국어를 통해 타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8	.813
	다문화 이해	나는 문화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해해 본다.		
	세계시민의식	나는 내가 속해있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봉사정신	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기꺼이 돕는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나는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역).	9	.777
수업 만족도	수업 만족도	나는 학과(전공)에서 진행하는 전공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
전체 문항		총 62문항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내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각 핵심역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III.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인 6개 핵심역량, 핵심역량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과 최솟값을 확인하였다(<표 4> 참고). 변인들의 평균값은 3.11~4.00이었으며, 이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핵심역량 전체 및 6개 하위핵심역량과 정적상관(.382~.586)을 보였다. 수업만족도 또한 핵심역량 전체 및 6개 하위핵심역량과 정적상관(.211~.354)을 보였다. 6개 핵심역량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327~.611)을 보였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창의융합	-								
정보활용	.561**	-							
자율책임	.611**	.459**	-						
핵심역량	.419**	.327**	.398**	-					
소통협력	.477**	.424**	.592**	.423**	-				
세계시민	.480**	.384**	.431**	.519**	.444**	-			
역량전체	.790**	.721**	.751**	.721**	.723**	.745**	-		
학업적 자기 효능감	.531**	.393**	.565**	.352**	.439**	.382**	.586**	-	
수업 만족도	.235**	.239**	.350**	.211**	.354**	.232**	.353**	.287**	-
평균	3.57	3.57	3.21	3.37	3.85	3.11	3.44	3.28	4.00
표준 편차	.646	.749	.523	.790	.527	.705	.486	.593	.793
최솟값	1.0	1.0	1.4	1.0	1.5	1.0	1.8	1.0	1.0
최댓값	5.0	5.0	4.4	5.0	5.0	5.0	4.9	5.0	5.0

* $p < .05$, ** $p < .01$

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 중 창의융합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 값은 $55.782(p < .001)$ 로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11.3%를 보였다. 변인들의 회귀계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 = .55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창의융합역량은 0.55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도 $B = .073(p < .001)$ 로 창의융합역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창의융합역량은 0.073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의융합역량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표 5>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TOL	VIF
	B	SE					
(상수)	1.473	.105		14.023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550	.028	.505	19.843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073	.021	.090	3.547	.000	.918	1.090
$F(p)$			55.782***				
adj. R^2			0.113				

* $p < .05$, ** $p < .01$, *** $p < .001$

계수(β 값)를 비교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 = .505$, 수업만족도는 $\beta = .090$ 로 나타나, 창의융합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정보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정보활용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F = 68.957(p < .001)$ 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10.2%의 설명력(R^2)을 보였다(<표 6> 참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 = .447(p < .001)$ 로 창의융합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정보활용역량은 0.447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도 $B = .129(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창의융합역량은 0.12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역량에 대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의 β 값을 통해 비교해

<표 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정보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TOL	VIF
	B	SE					
(상수)	1.584	.132		12.035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447	.035	.354	12.869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129	.026	.137	4.983	.000	.918	1.090
$F(p)$			68.957***				
adj. R^2			.102				

* $p < .05$, ** $p < .01$, *** $p < .001$

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354$, 수업만족도는 $\beta=.137$ 로 정보활용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자율책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자율책임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 값은 $90.900(p<.001)$ 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설명량(R^2)은 13.1%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447(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은 0.447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 역시 $B=.135(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은 0.135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책임역량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

<표 7>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자율책임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t	p	TOL	VIF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β			
(상수)	1.206	.081		14.878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447	.021	.506	20.878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135	.016	.205	8.473	.000	.918 1.090
F(p)				90.900***		
adj. R ²				.131		

* $p < .05$, ** $p < .01$, *** $p < .001$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506$, 수업만족도는 $\beta=.205$ 로 자율책임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문예소양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문예소양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8>와 같이 $F=52.076(p<.001)$ 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설명량(R^2)은 7.9%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423(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은 0.423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 역시 $B=.119(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도 0.119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문예소양역량에 대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문예소양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t	p	TOL	VIF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β			
(상수)	1.505	.142		10.614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423	.037	.317	11.306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119	.028	.119	4.254	.000	.918 1.090
F(p)				52.076***		
adj. R ²				.079		

* $p < .05$, ** $p < .01$, *** $p < .001$

과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β) 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317$, 수업만족도는 $\beta=.119$ 로 문예소양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소통협력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소통협력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F=94.841(p<.001)$ 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13.6%의 설명력(R^2)을 나타내었다. 변인들의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326(p<.001)$ 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도 0.326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 역시 $B=.165(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은 0.165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소통협력역량에 대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9>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소통협력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t	p	TOL	VIF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β				
(상수)	2.122	.088	24.097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326	.023	14.043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165	.017	9.489	.000	.918	1.090
$F(p)$				94.841***		
adj. R^2				.136		

* $p < .05$, ** $p < .01$, *** $p < .001$

과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β) 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368$, 수업만족도는 $\beta=.248$ 로 소통협력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세계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세계시민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와 같이 $F=83.683(p<.001)$ 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설명력(R^2)은 12.2%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409(p<.001)$ 으로 자율책임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은 0.409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도 $B=.118(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수업만족도가 1증가하면 자율책임역량도 0.11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세계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t	p	TOL	VIF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β				
(상수)	1.289	.125	10.339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409	.033	12.430	.000	.918	1.090
수업만족도	.118	.025	4.807	.000	.918	1.090
$F(p)$				83.683***		
adj. R^2				.122		

* $p < .05$, ** $p < .01$, *** $p < .001$

세계시민역량에 대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β) 값을 비교해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344$, 수업만족도는 $\beta=.133$ 로 세계시민역량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이 지각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개인 심리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육변인인 수업만족도가 6개 하위 핵심역량(창의융합역량, 정보활용역량, 자율책임역량, 문예소양역량, 소통협력역량, 세계시민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개인 심리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든 핵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 그리고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김동심, 김실희, 2017; 김숙인, 신태섭, 2020; 임선아, 정윤정, 2013; Komarraju & Nadler, 2013). 이에 더 나아가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 다른 학업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증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의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김기홍, 이경희, 2020; 이혜주, 2021), 본 연구 결과는 이들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이버대학의 성인 학습자들의 핵심역량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학업성취도는 학생이 특정 과목이나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습득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핵심역량은 학업적 성과를 넘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이다(이근호 외, 2012). 이는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능력과 같은 보다 폭넓고 다차원적인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인성적 성장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유현숙 외, 2004).

본 연구에 적용된 S 사이버대학의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역량, 정보활용역량, 자율책임역량, 문예소양역량, 소통협력역량, 세계시민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한수미 외, 2022). 창의융합역량은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정보활용역량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과 ICT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율책임역량은 자기 주도적 목표 설정과 계획 실행 능력을 포함한다. 문예소양역량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또한 소통협력역량은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능력을 의미하며, 세계시민역량은 국제적 이해와 다문화 소양으로 사고하고 봉사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들은 정의에서 보여주듯이 직업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생활 전반에서 성공적인 수행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Bandura, 1986). 이는 학업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조직 및 실행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을 통해 이를 발휘하게 된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학업 수행 과정에서 자기조절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러한 신념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습득하는 데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과 같은 핵심역량도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데 더욱 능동적이고 끈기 있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역량에는 실제 직무 관련 경험이나 사회생활 맥락에서 체험들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실제적, 조건적, 암묵적인 지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들은 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새로운 과제를 선호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자기조절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길러지는 학습상황에서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개 핵심역량 중 자율책임역량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신념은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기를 유지하며, 복잡한 문제 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자율책임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이 역량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육변인인 수업만족도도 모든 핵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준거로 활용된다(송수연, 김한경, 2020; Marsh, Touron, & Wheeler, 1985). 본 연구에서는 수업만족도가 기존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핵심역량의 증진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습방법, 강의의 질, 학습만족도, 수업만족도 등이 핵심역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김안나, 이병식, 2003; 조미경, 김미영, 2018; 전예원, 2014; 허영주, 2022). 특히 본 연구결과는 수업만족도가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익한 강의내용과 열정적이고 잘 준비된 교수의 강의, 효과적인 수업방식 및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방식 등 수업설계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자신의 기대에 충족하게 될 때 높은 수업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수업이 목표로 하는 관련 핵심역량을 증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수업만족도는 6개 핵심역량 중 소통협력역량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수업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갈등 해결 및 협동 전략을 배워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교육적 맥락을 넘어 일상 및 직업 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수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핵심역량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동기 부여적 특성과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련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며,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믿음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와 지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및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김동심, 김실희, 2017). 이는 학습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수업이 학생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를 반영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보다 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끈기, 능동적인 학습 참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핵심역량 연구와 대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Bandura(1997)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주요 원천으로 성공경험, 대리경험, 타인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생리적 상태를 언급하였다. 즉 학업과 관련된 자신의 성공경험, 타인의 성공적 수행과정을 관찰하는 대리경험, 타인의 지지와 설득, 그리고 긍정적인 생리 및 심리상태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교수학습체계 내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성공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교수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학습자 간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성하여 해당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핵심역량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수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표적인 학습자 개인 심리변인과 교육변인을 도출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대학교육 맥락에서 핵심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또한 본 연구에는 한 문항으로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수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변인과 교육변인을 보다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환경, 교육과정, 수업운영, 학습자의 학습환경, 각종 학생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변인들의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대학의 핵심역량에 대한 두 개 변인의 영향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추후에는 핵심역량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은 실제 행동이나 수행을 통해 관찰된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자기인식에 의한 자기보고식 평가를 통해 측정되었다. 핵심역량은 실제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력과 관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수행결과나 수행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강명희, 김은희, 유영란, 김보경 (2014). 학습자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애핵심역량 차이 분석. 평생학습사회, 10(4), 61-84.
- 구병두, 양애경, 최종진 (2014).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2000년 이후에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5), 1979-2000.
- 김기홍, 이경희 (202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8(4), 117-143.
- 김동심, 김실희 (2017). 학업복귀 성인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및 성취도 예측변인 검증. 평생학습사회, 13(4), 129-150.
- 김민정 (2019).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고와표현, 12(1), 195-220.
- 김숙인, 신태섭 (2020). 중학생의 마인드셋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3), 697-726.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안나, 이병식 (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0(1), 367-392.
- 김용덕, 최동연 (2020).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모델링.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885-908.
- 김현우, 강선영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37-357.
- 배현주, 백영은 (2017).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생의 K-CESA 핵심역량 분석. 핵심역량교육연구, 2(1), 125-143.
-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손요한, 김인규 (2020).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연구: J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519-529.
- 손유미, 백영은 (2017). 2016-2017년 상반기 대학생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분석. 핵심역량교육연구, 2(2), 1-21.
- 송수연, 김한경 (2020). 언택트 시대의 대학교육: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만족도와 수강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4), 1099-1126.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유라, 이은주 (2021).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6(1), 65-92.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구상. 연구보고 RRC 201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식, 최정윤 (2009). 대학졸업자의 취업성취에 대한 개인 및 대학특성 영향요인 탐색: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차이 분석. 한국교육, 36(1), 191-215.
- 이하원, 이화선 (2017).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 검사(K-CCCA)의 개발. 교양교육연구, 11(1), 97-127.
- 이혜주 (2021).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핵심역량,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33-43.
- 임선아, 정윤정 (2013). 메타분석을 통한 자기효능

- 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검증. *교육학연구*, 51(3), 83-105.
- 전예원 (201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무정, 최선일 (2019). 대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13(4), 207-233.
- 조미경, 김미영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업성취도가 핵심역량,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3), 161-170.
- 진미석 (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1), 105-127.
-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최윤정 (2018). 성인학습 및 상담론. 서울: 학지사.
- 하정윤, 김정민, 강지연, 차지철 (2016). 대학생 핵심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과의 관계 -교육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학술대회지*, 3, 53-75.
- 한수미, 김환, 남상규, 강지연 (2022). SCU핵심역량 연구보고서. 서울사이버대학교.
- 황지원, 노일경, 정혜령 (2016). 성인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진단 및 대학교육에서의 시사점 탐색: 재직자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1(1), 47-78.
- 황지원, 손유미, 백영은 (2017). 대학생들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분석: K-CESA 진단결과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12(1), 107-123.
- 허영주 (2022). 단과대학별 신입생의 핵심역량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만족도 요인 탐색: 대면과 온라인, 병행 수업상황의 비교. *핵심역량교육연구*, 7(1), 127-15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Eagly, A. H. (2009). The his and hers of prosocial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psychology of gender. *American Psychologist*, 64(8), 644-658.
- Komarraju, M., & Nadler, D. (2013).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hy do implicit beliefs, goals, and effort regulation matte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67-72.
- Knowles, M., Holton III, E., & Swanson, R. (1998).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an Diego, CA: Elsevier.
- Marsh, H. W., Tourón, J., & Wheeler, B. (1985). Students' evaluations of university instructors: The applicability of American instruments in a Spanish setting. *Teaching & Teacher Education*, 1(2), 123-138.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 Puzziferro, M. (2008). Online technologie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predictors of final grade and satisfaction in college-level online courses.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22(2), 72-89.
- Robbins, S., Lauver, K., Le, H., Langley, R.,

Davis, D., & Carlstrom, A. (2004). Do psycho-social and study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0*, 261-288.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79-333.

투고일자: 2024. 8. 31.

심사일자: 2024. 9. 24.

게재확정일자: 2024. 9. 30.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ourse Satisfaction on Core Competencies among Adult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Yoon Jung Kim Hyunjin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cademic self-efficacy and course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adult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significantly influenc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 online survey of academic self-efficacy, course satisfaction, and core competencies was conducted among 1,196 adult learners (455 men and 741 women) aged 20 years and above enrolled at S Cyber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27.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perceived academic self-efficacy and cours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all six sub-competencies of students' core competencies. Second, of the two, academic self-efficacy had a relatively greater impact on all six sub-competencies.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the core competencie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and proposes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Keywords: Cyber University, Adult Learners, Students' Core Competencies, Academic Self-Efficacy, Course Satisfaction